

이름과 지시 : 인과적 이름이론을 중심으로

이 봉 제

● 목 차 ●

- | | |
|----------------------|------------------|
| 1. 이름의 문제 | 3. 3. 평가 |
| 2. 기술적 이름이론 | 4. 인과적 이름이론 |
| 2. 1. 기본 주장 | 5. 인과적 이름이론 검토 |
| 2. 2. 세련화 : 다발기술론 | 5. 1. 명명식의 문제 |
| 3. 크립키의 기술론 비판 | 5. 2. 인과적 사물의 문제 |
| 3. 1. 양상논증 | 6. 전망 |
| 3. 2. 비양상(또는 의미론적)논증 | |

1. 이름의 문제

이름(즉 고유명사)은 20세기 영미(언어)철학계의 중심주제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이름이 갖는 전통적인 의미론적 중요성 때문이며, 나아가서는 현대 영미언어철학의 논의틀을 제공하였던 프레게(G. Frege)의 의미론적 골격 탓이기도 하다. 이름의 일차적인 의미론적 중요성은 우리 언어의 문법적 구조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의 말은(논리적 관점에서 볼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말하려는 주제나 대상을 도입하는 부분이며,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 이러저러한 규정을 내리는 부분이다. 언어에 대한 논리적, 의미론적 분석에 있어서 문장을 기본적으로는 주어-술어의 구조로 파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직관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의 말에 언어외적 대상을 도입하는 문법적 장치로서의 주어에 적합한 대표적인 어귀가(대상에 대한)이름임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따라서 언어와 세계와의 관계해명을 핵심과제로 삼는 언어철학 및 의미론은 언제나 이름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이름의 이러한 의미론적 중요성은, 우리언어에 대한 주어-술어 구조로의 분석을 거부한다고 알려져있는 프레게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다. 프레게의 의미론은(그의 형식언어를 구성하는 구문론적 원리에 따라) 단칭명사(singular term)와 단순술어(simple predicate)로 이루어지는 원자문장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데,¹⁾ 단칭명사의 해석에 있어서 이름의 문제가 연루된다. 일반적으로 단칭명사의 자연언어적 대응물로서는 지시사(demonstrative), 이름, 확정기술구(definite description)의 세종류가 거론되며, 여기서 이름의 해석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름의 의미론적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쟁점이 되는 것은 이름이 의미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

1) 정확히 말하면 프레게 의미론에서는 이외에도 양화사의 해석문제가 또다른 중심위치를 차지한다. cf. Dummett, "Frege's distinction between sense and reference" pp. 116~122.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름에 관한 한 다음의 두가지 상충하는 직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²⁾

1. 가장 손쉬운 직관은 이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름을 다른 품사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예컨대 “문의환” “서울” 등의 이름은 “빨강다” “책상” “1989년의 한국대통령” 등과 같은 형용사, 일반명사, 확정기술구와 달리 대상을 대표하는 것 이외의 아무런 의미 (즉 기술적 내용 descriptive content)를 갖지 않는 듯 하다는 것이다. 이는 “신성로마제국 the Holy Roman Empire”과 같은, 마치 기술적 내용이 있는 듯해보이는 이름의 경우에 더욱 분명해진다.³⁾ 신성로마 제국은 사실상 신성한 것도 제국도 아니었으나, 그러한 사실이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의 기능에 아무런 장애도 주지 않는다. 또한 이름짓는 것과 묘사, 기술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듯 하다는 사실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즉 이름짓는 것은 무엇을 묘사,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하기 위한 예비단계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볼 때 이름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으며, 오직 대상을 언어 내로 도입하는 즉, 지시하는 (의미론적)기능 만을 갖는다는 주장이 그럴 듯 해진다.⁴⁾

2. 그러나, 한편으로 이름은 어떤(기술적)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직관도 강력하다. 그것은 첫째, 이름이 궁극적으로 예시(ostension)나 기술 (description)에 의해서 배워진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그것은 곧, 이름이 대상의 (다른 것과 구별되는 예시적, 기술적) 특성(characteristic)을 매개로 하여 대상과 관련지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즉 이름의 사용이 본질적으로 대상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이름이 단순히 대상을 대표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의미요소를 포함한다는 주장을 옹호한다. 둘째로, 이름은 기본적으로 특정대상에 대한 것이며, 그리하여 그것의 의미론적 규칙은 여러 다른 경우에 동일한 특정대상을 다시 지시할 수 있다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름이 암암리에 동일성기준 (criteria of identifying)이라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우리의 두번째 직관이 더욱 매력있어진다.

그리하여 대상의 특성에 대한 (기술적 descriptive)지식없이 이름의 지시 기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 또는 가능해지며, 이는 첫번째 직관과 대립하는 듯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상기한 두 직관은 각각 밀(J. S. Mill)과 프레게에 의하여 최초의 명시적인 철학적 규정을 얻는다. 잘 알려져 있듯이 밀은, 이름이 내포(connotation)를 갖지 않으며, 오직 외연(denotation)만을 갖는다고 말함으로써 첫번째 직관을 고전적으로 대변한다.⁵⁾ 이후 프레게는 밀의 직관이 함축하는 이론적 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두번째 직관을 매력적으로 부각시켰다.⁶⁾ 프레게의 영향력은 지대하였으며, 그것이 70년대 이전까지 영미언어철학계의 주류였던 기술적 이름이론(이하 기술론)의 골격을 제공한다. 본 논문이 주제로 삼는 인과적 이름이론(이하 인과론)은 바로 이 기술론에 대항하여 밀의 직관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입장이다.⁷⁾

70년대 들어서 영미철학은 지시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으며,⁸⁾ 그 한가지 성과가 인과적

2) cf. J. Searle “Proper Names” pp. 270~2 : “Proper Names and Descriptions” pp. 487~9.

3) cf. Searle, “Proper Names” p. 274.

4) 이런 관점에서 이름은 언어의 정당한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까지도 가능해진다.

5) cf. J. S. Mill, *A System of Logic* pp. 29~44.

6) cf. G. Frege, “Sense and Reference”

7) 보다 일반화된 명칭은 기술적 지시론과 인과적 지시론이다. 본 논문은 논의를 이름에 한정짓는 까닭에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론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정대현, “지칭 : 언어적인가 존재적인가” p. 23

8) Donnellan, “Proper Names and Identifying Descriptions” : Kaplan, “Dthat” : Kripke, “Identity and Neces-

이름이론(causal theory of name)이다. 그것은 이름에는 아무런 내포가 없다는 밀의 주장에, 이름의 지시는 화자의 이름사용으로부터 최초의 이름 사용(즉 명명식)또는 지시대상에까지 연결되어있는 인과적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주장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열어간다. 이들의 주장은, 만일 옳을 경우, 이름의 의미론적 기능에는 어떤 지식도 본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밀(Mill)류의 직관적 설득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시관계를 인과관계라는 자연주의적(naturalistic), 물리주의적(physicalistic)관계로 설명한다는 20세기 과학문명적 설득력을 함께 갖추게 된다. 본 논문이 인과론을 중심으로 문제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언어와 대상 간에는 어떤 의미요소, 어떤 지식에 의해서도 매개되지 않는 “직접적 지시 direct reference”의 관계가 성립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인과론이 설명하는 방식 그대로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 글의 논제이다. 이 글은 이름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름에 대한 인과론적 해석을 주도한 크립키(S. Kripke)를 중심으로 인과론의 주장과 논거를 검토해보려한다. 기술론의 세 주장을 배경으로 하여 인과론의 입장을 정리한 이후,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대안적 지시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2. 기술적 이름이론

2. 1. 기본주장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기술론은 밀류의 이름해석이 갖는 논리적 난점을 지적함으로써 이른바 프레게류의 직관을 옹호하는 입장으로서, 프레게, 러셀(B. Russell), 스트로슨(P. Strawson), 설(J. Searle)등에 의해 발전된다.⁹⁾ 그 기본 주장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름은 의미(sense)를 가지며, 그 의미는 이름의 관련기술(associated description)에 의해 주어진다는 의미론적 주장이 그 하나이며, 이름의 지시는 관련기술(들)의 집합, 즉 이름사용자의 관련믿음(들)을 만족시키는 대상이라는 지시론적 주장이 그 둘이다. 예컨대, “노태우”라는 이름과 관련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상하는 기술이 “6·29선언 주도자”라고 한다면,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단 하나라고 가정하자), “노태우”라는 이름의 의미는 확정적으로 6·29선언 주도자이며, “노태우”라는 이름의 지시는 6·29선언 주도자라는 기술을 만족시키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곧, 이름과 관련기술은 동의관계(synonymy-relation)에 있으며 이름은 일종의 “약식기술 abbreviated description”이라는 논제와, 지시메카니즘에 관한 한 이름과 기술은 다를 바가 없다는 논제에 연결된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이름사용이 (관련)지식과 본질적으로 연루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론의 입장이, 밀(Mill)의 이름해석이 함축하는 논리적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강화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컨대 이름이 지시 이외의 아무런 의미론적 기능을 갖지 않는다면 “a는 b다”라는 형태의 동일성 진술이 정보적(informative)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으며, “a는 존재한다” 또는 “b는 존재하지 않는다”등의 (유의미한)존재진술들이 무의미해진다는 점 (이때 “a” “b”는 이름이다)등이 대표적인 문제들이다.¹⁰⁾ 이러한 지적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름의 의미론적 기능을 오직 대상을 대표, 지시하는 것 뿐이라고 보는 입장의 순진함이다. 그러한 입장은 심각한 논리적 난점들을 회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이름이 대상을

city”, “Naming and Necessity” : Putnam, “Is Semantics Possible?” 등이 당시의 대표적 업적들이다.

9) cf. Russell, “On Denoting” : Strawson, *Individuals* pp. 180~197.

10) 관련문제들에 대하여 : cf. Devitt, *Designation* pp. 4~6.

지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론적 요소(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이름의 의미(sense)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는 몇가지 해명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하여 기술론의 변형 및 거부가 논의된다. 그 문제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¹¹⁾ 첫째, 일반적으로 이름에는 여러개의 기술들이 연관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잘못된 기술도 연관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 화자들이, 그 이름에 반드시 동일한 기술(들)을 연관시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셋째, 만일 F가 a의 관련기술(즉 의미)라면 “a는 F이다.”는 형태의 진술은 동어반복, 즉 분석적 참이 된다는 점 등이다. 이 문제들을 직면하여, 혹자는 기술론의 자체변모를 통하여 대응하기도 하고, 혹자는 기술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도 한다. 전자의 태도를 대표하는 것이 이른바 다발기술론(cluster-description theory)이며, 후자의 태도는 크립키가 대변한다.

2. 2. 세련화 : 다발기술론

앞서의 문제들에 대한 다발기술론의 대응은 이러한 것이다.¹²⁾ 다발기술론은, 이름이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는 관련기술의 의미라는 프레게노선의 기본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름의 지시적 기능은 반드시 어떤 류의 지식을 필요로 하며, 그런 맥락에서 이름은 대상이 표현되는 방식이라는 요소, 이른바 “표현양식 mode of presentation”¹³⁾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표현양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서 발생한다. 다발기술론자들에 따르면 이름의 표현양식을 특정기술과 동일시하며, 그리하여 이름에 대한 명시적 정의(“a는 F이다”)가 가능한 듯이 말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그럴 경우 앞서의 세번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며, 하나의 이름에 여러가지 기술 그리고 잘못된 기술이 연관될 수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이름을 각기 다른 기술과 관련시켜 사용한다는 첫째, 둘째 문제도 모면키 어렵게 된다.¹⁴⁾ 그리하여 다발기술론자들은, 이름의 의미를 인정하고 그 의미가 어떤 기술과 관련된다는 기술론의 기본명제 아래, 이름의 관련기술들을 복수로 하는 동시에 이름의 의미로서 특정기술(들의 집합)을 확정적으로 대응시키지 않는 방식의 대안을 제안한다.

대표적 다발기술론자인 설(J. Searle)은 이렇게 말한다.¹⁵⁾ 이름의 고유한 특성은, 그것의 지시적 사용이 적용기준으로서의 어떤 기술들을 전제하되 특정한 기술들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우리 언어는 예컨대 “현재 한국대통령”과 같은 확정적 적용기준을 가진 지시어(확정기술구)와 함께, 확정적 적용 기준은 갖지 못했지만 지시기능을 갖는 지시어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이다. 즉, 우리가 대상에 관련된 (참인)확정기술구를 알지 못하면서 그 대상을 지칭하려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대상에 대한 이름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적용기준의 느슨함을, 이름과 기술을 구별시켜주는 근본특성으로 볼 때, 이름이 여러개의 관련기술구를 갖는다는 애매성의

11) 이 문제들은 기술론에 대한 제 논의들에서 지적되고 있다.

cf. Searle, “Proper Names” pp. 275~6. ; Kripke, NN pp. 22~26.

12) cf. Searle, “Proper Names”, “Proper Names and Descriptions”

다발기술론의 전반적 개관에 대해서는 : cf. Schwartz, “Introduction”

13) Frege, “Sense and Reference”

14) 이러한 문제는 이름의 관련기술을 특정한 하나로 생각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흔히 프레게, 러셀의 기술론적 입장을 일컫는 단칭기술론(singular description theory)이 그러한 유형이다.

15) 설은 이러한 입장이 밀과 프레게를 종합적으로 절충한다고 말한다.

cf. Searle, “Proper Names” pp. 272~4, “Proper Names and Descriptions” p. 490.

문제 및 이름에 잘못된 기술들을 연관시키는 거짓기술의 문제 등은 상당부분 해소되며, 또한 어떤 특정기술을 이름과 연관시키는 동일성진술(예컨대 “노태우는 현재 한국 대통령이다”)은 단순한 동어반복을 벗어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결코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답변일 수 없다는 것이 크립키의 입장이다.

3. 크립키의 기술론비판

크립키의, 이름에 대한 논의는 (서로 보완적이기는 하나)구분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이름에 대한 기술론적 설명을 비판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해서 이름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엄밀하게 말하자면 대안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이를 3, 4절에 걸쳐서 차례로 살펴보자.

설의 설명이 보여주듯, 다발기술론은 기술론을 가장 세련된 형태로 대변한다. 그러나 그것이 기술론의 근본전제를 유지하는 한, 이름에 대한 정당한 설명일 수 없다는 것이 크립키의 주장이다. 이에 관련하여 크립키는 여러가지 논변들을 제시하는데, 그것들은 기술론의 의미론적 주장과 지시론과 주장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논증한다. 그것이 이른바 양상논증(modal argument)과 비양상(또는 의미론적) 논증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로서, 그것들은 각각 기술론에 대하여(그것이 단칭 기술론이건 다발기술론이건 간에) 1) 우리의 양상적 직관에서 드러나는 이름/기술간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으며, 2) 이름의 실제적 용례가 보여주는 바 이름이 화자의 관련 지식(즉 기술)과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과 상충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고 비판함으로써, 이름과 기술을 동일시하는 이름해석에 대해 중요한 반론을 제기한다.

3. 1. 양상논증

양상논증은, 기술론에서 상정하는 이름/(관련)기술 간의 동의 관계가 우리의 직관이 용납하기 어려운 양상적 귀결을 갖는다고 비판한다.¹⁶⁾ 기술론을 따라서 어떤 이름 “a”에 대하여 일련의 기술들이 동의관계로서 대응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연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귀결을 함축하게 된다. (이때 관련기술들이 표현하는 속성들을 F라 하자.):

“만일 a가 존재한다면, a는 F(의 대부분)를 갖는다.”라는 진술은 (해당화자에게 있어서)

필연적 진리를 표현한다.

이것은 예컨대 “노태우”라는 이름에 “현재 한국대통령”이라는 기술을 (동의관계로서)관련시키는 화자에게 있어서, “노태우는 현재 한국대통령이다”는 진술은 분석적 참이며, 따라서 필연적 참인 진술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의 직관은, “노태우가 현재 한국대통령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데에서 드러나듯이 그것을 필연적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노태우가 현재 한국대통령이 아니었을 수 있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당한 가능성인 듯하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현실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은(기본적으로는)우연이며, 이름은 그 지시대상이 현실세계의 특성을 결여하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상황에서도 동일한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언어적, 양상적 직관이다.

이는 일단 기술론의 양상적 함축에 문제있음을 보여주는데, 크립키는 이러한 직관을 바탕으로 하여 이름/기술 간의 근본적 차이를 일반화하여 제시한다. 그것은 양상문맥에서의, 이름/기술이 갖는 의미론적 기능의 차이(즉 문장진리값에의 기여방식)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서,

16) 이하 cf. NN pp. 73~80.

크립키는 그것을 고정지시어(rigid designator)란 개념으로 분명히 한다 : 이름은 고정지시어이며, 기술(구)는 비고정지시어이다. 이때 고정지시어란 모든 “가능세계 possible world”에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지시어구라고 정의된다.¹⁷⁾

이름이 고정지시어라는 것은 이름과 지시대상간의 관계가 변화할 (가능세계적 또는 형이상학적) 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서, 이름은 어떤 반사실적 상황에서도 원래의 (고정된) 지시대상을 지시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기술은, 지시에 있어서 이름과 같은 고정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볼 때 잘 드러난다.¹⁸⁾

(1) “노태우는 노태우가 아닐 수도 있었다.”

(2) “현재한국대통령은 현재한국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었다.”

이때 두 문장은 “a는 a이다”라는 동일한 형태를 취하며, “a”자리에 들어가는 어귀들의 (현실적) 지시대상이 동일하면서도 (1)문장은 거짓이며, (2)문장은 참이다. 이는 “노태우”와 “현재대통령”이 의미론적으로 동등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를 크립키는 “노태우”란 지시어구는 그 지시대상을 고정적으로 지시하며, “현재 한국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일종의 “고정성검사 rigidity test”라 할 수 있는데,¹⁹⁾ 그로부터 우리는 이름/기술이 대상을 지시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크립키는 이로써 이름과 기술은 그 의미론적 기능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결론한다. 이는 대상의 이름이 대상에 대한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2. 비양상(또는 의미론적)논증

이상과 같이 양상논증이 현실세계에서, 이름에 관련되는 기술들이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그 이름(의 지시대상)에 관련되지 않을, 이른바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주목하는 것인 반면, 비양상논증은 현실세계에 있어서 이름에 연관되어 있는 기술이 이름에 해당치 않는 또는 부적절한 것일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주목한다. 그것은 이미 말했듯이 기술론의 지시론적 측면을 비판한다.

지시론으로서의 기술론은, 우리의 이름사용이 대부분의 경우 대상확인을 위한 부가적 지식(즉, identifying knowledge)과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사실로부터, 이름은 (다양한) 관련믿음을 수반하여 사용되며, 이름의 지시는 그 믿음들(또는 그것들의 언어적 표현인 기술들)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로부터 우리는 다음 두 논제를 연역할 수 있는데, 크립키는 그것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

(1) 이름은 관련기술들을 만족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이름의 지시대상이다.

(2) 만일 그러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름은 지시하지 않는다.

크립키의 비판은 기본적으로, 이름의 지시는 화자의 관련믿음과 무관히 (즉, 잘못된 경우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언어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도넬란(K. Donnellan)이래 주목되어왔던 것으로서,²⁰⁾ 크립키는 그로부터 이름/기술 간의 지시론적 무관함을 논증한다. 다음 예를 생각

17) cf. NN p. 48.

18) 이하 논의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해석된다.

cf. Devitt, *Designation* p. 14. pp.207~219.

cf. Dummett, *Frege : The Philosophy of Language* pp. 111~35.

Donnellan, “The Contingent A Priori and Rigid Designators” pp. 47~9.

19) NN pp. 48~49

20) cf. Donnellan,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

해보자.²¹⁾ 예컨대 (기술론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노태우”라는 이름을 “6·29선언 주도자”라는 기술과 더불어서만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기술론의 입장에서는 “노태우”의 지시대상은 6·29선언 주도자라는 기술적 내용을 만족시키는 대상, 즉 노태우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6·29선언주도자가, (최근 보도되는 바처럼) 노태우가 아니라 전두환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의 우리에게 있어서 “노태우”의 지시대상은 무엇인가? 기술론의 입장을 따르면 그 경우 “노태우”의 지시대상은 전두환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6·29선언주도자라는 기술을 만족하는 대상이 전두환이기 때문), 그것은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가? 아마도 우리는 그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노태우”는 어느 경우에도 노태우를 지시할 뿐이며, 단지 우리의 관련지식 (즉 기술)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의 이름사용에 대한,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예의 논점은, 우리가 이름을, 많은 경우, 잘못된 지식이나 믿음에 연관지어 (때때로는 아무런 지식이 없이도) 사용한다는 사실과 그로부터의 논리적 함축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기술론의 위 두 논제가 문제있음을 알 수 있다.

(1) 위 예는 “노태우”라는 이름의 관련기술인 “6·29선언주도자”라는 어귀가 그 지시대상으로서 전두환을 갖는다 할지라도, “노태우”라는 이름은 전두환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름의 관련기술을 만족하는 대상이 곧 이름의 지시대상이라는 첫번째 논제를 논박한다.

(2) 위 예를 변형하여 “6·29선언주도자”라는 기술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해보자. (중요한 정치적 선언이 모년 5월 29일에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잘못된 기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경우 기술론에 따르면 “노태우”라는 이름은 아무런 대상도 지시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온당한가? 그것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온당치 않다. 우리가 종종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름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지시대상에 적합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름의 관련기술이 지시대상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이름이 지시하지 않는다는 두번째 논제 또한 부당하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이름의 지시결정에 있어서 관련기술은 필요치도 충분치도 않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관련기술 없이도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치 않으며, 관련기술의 지시대상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지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치 않다. 그리하여 비양상논증을 이름의 지시에 있어서 지식 및 기술의 역할을 설득력있게 위축시킨다.

3. 3. 평가

이상의 논증들은, 이름과 기술간의 관계가, 의미론적으로나 지시론적으로나, 기술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밀접하지 않다고 말하려 한다. 이름이 관련기술과 무관해질 가능세계적 가능성(양상논증)과 현실세계적 가능성(비양상논증)을 고찰함으로써, 1) 이름은 기술과 그 의미론적 기능방식이 다르며, 2) 이름의 의미론적 기능수행(즉, 지시)에는 기술 및 지식이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결론된다. 그 논증들은 강력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양상논증은 여러가지 이론적 반론에 직면한다.

21) 비양상논증에 사용되는 예들은 여러가지가 알려져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크립키의 괴델/슈미트 예이며, 우리의 예도 그것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cf. NN, pp. 80~87.

기타 예들에 대하여 : cf. NN : Donnellan, “Proper Names and Identifying Descriptions” : Putnam, “The Meaning of Meaning” etc.

이름과 기술을 양상문맥에서의 의미론적 기능에 의하여 구분하여, 각각을 고정지시어, 비교정지시어로 성격규정하는 것이 양상논증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의적인 구분이 가능한가는 논란거리이다. 다시 말해서 이름과 기술이 과연 고정성 (rigidity)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첫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상언어에서 이름은 모두 고정지시어일지 몰라도 모든 기술이 비교정지시어이지는 않은 듯하다는 점이다. 크립키 자신의 예에서도 나타나듯이²²⁾, “2와 3의 합”과 같은 어귀는 그 문법적 형태에 있어서는 기술이지만, 고정성검사에 의해서는 고정지시어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고정성시험을 통과하는 듯하다: “2와 3의 합은 2와 3의 합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문장은 거짓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고정성개념으로 이름/기술을 일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치 않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크립키논증을 전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크립키의 기술론비판은 일차적으로 이름을 관련기술과 구분하는 데 촛점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기술이 비교정지시어이지는 않다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크립키의 논점은 유효하게 된다.

그리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이름과 기술 간에는 고정성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다는 문제제기이다. 이에, 이름을 일종의 기술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과 모든 기술을 고정지시어화할 수 있다는 주장의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결정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크립키의 논증을 상당정도 손상시킨다. 첫번째 주장은 주로 더메트(Dummett)에 의해 제시된 것인데²³⁾, 그 핵심요지는 이름을 넓은 범위(wide scope)를 가진 기술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러셀(Russell) 이래 지적되어온 기술의 양상문맥에서의 범위애매(scope ambiguity)라는 착상을 이용한 것으로서, 크립키가 고정지시어라는 개념으로 규정한 이름의 행태(behavior)는 양상문맥에서의 기술을 양상오퍼레이터(operator)밖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때의 그것과 동일하며, 따라서 이름과 기술의, 고정성에서의 차이는 양상문맥에서의 범위해석 상의 차이로 해석,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²⁴⁾ 두번째 주장은 린스킨(Linsky), 플랑팅가(Plantinga) 등에 의해 지적된 것으로서, 기본착상은 모든 기술구를, 실제세계 actual world의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해석하여 다른 가능성세계에서 지시변화할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다²⁵⁾ 예컨대 “망원경발명자”와 같은 기술구를 “실제적 (actual) 망원경발명자”라는 내용으로 변형,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반론가능성들은 그 자체 논리적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들로서, 따라서 그 논증적 완결성 여부와 무관히 일단 고정지시어 개념의 이론적 유효성을 손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기술론비판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비양상논증이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상기한 양상논증에의 반론가능성 탓이며, 또한 비양상논증이 이름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철학적 논제인 “의미(sense)가 지시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정면에서 공격하기 때문이다. 비양상논증은 명백한 직관적 호소력을 가지고 어떤 의미요소, 즉 개별화자의 지식(및 기술)이 이름의 지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설득력있게 논파한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22) “Identity and Necessity” pp. 144~5.

23) Dummett, *Frege: the Philosophy of Language*, p. 112~6.

24) 이에겐 고정성 개념과 범위개념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크립키의 반론이 있다. cf. NN pp. 10~14.

25) Linsky, *Names and Descriptions*: Plantinga, “The Boethian Compromise” pp. 129~38.

것이다. 크립키의 기술론 비판이 옳다면, 그리하여 이름의 지시가 기술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와 관련하여, 이름의 지시에 있어서 지식은 전혀 무관하며 불필요한가? 이들 문제에 대한 반기술론적 대안이 바로 인과론이다.

4. 인과적 이름이론

이름이 의미가 있으며, 이름의 관련기술들이 그 의미를 제공하고, 그것들이 또한 이름의 지시를 결정해준다는 기술론의 기본명제들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때, 다음 문제들은 새롭게 대담되어야 한다.

- 1) 이름은 의미를 갖는가?
- 2) 이름은 관련기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가?
- 3) 관련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이름의 지시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미 말했듯이 이에 대한 반기술론적 대안이 바로 인과론이다. 인과론의 입장에서 이 물음들이 어떻게 대답될 수 있는지, 크립키를 중심으로 살펴보자.²⁶⁾

(1) 이름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크립키는 밀(Mill)을 따른다.²⁷⁾ 그럴 경우 밀에 대한 기술론자들의 반론들(2. 1절을 참고할 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작업의 일단을 최근의 인과론옹호자인 데비트(Devitt)가 보여주고 있다. 데비트는 프레게류의 반론을 고려하여 이름에 의미요소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때에도 의미는 기술론자들이 말하는 바, 이름의 관련기술들이 제공하는 그런 것은 아니며, 굳이 말하자면 인과적 의미라고 할만한 것으로서²⁸⁾, 기본적으로는 밀-크립키 노선을 유지한다.

(2) 이름이 기술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름이 우리들각자에게 도입되는 방식은 (예시에 의존하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술에 의존한다는 언어적 사실이 말해 주듯, 이름이 그것의 주요기능인 지시에 있어서 기술에 의해 도움받는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다. (이러한 광범위한 이름/기술 간의 현실적 관련이 기술론자들의 배면적 동기였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크립키는 이름 사용에 연루되어 있는 기술의 역할을 기술론과 달리 설명한다. 관련기술의 역할을 이름의 의미를 주는 것으로 여기는 한, 3절에서 지적되었던 기술론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기술은 단지 이름의 지시를 결정해주는 현실적 수단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⁹⁾ 일반적으로 속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대상인식, 대상지식에 있어서, 기술은 현실세계에서 대상이 갖는 우연적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이름의 지시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기술은 “대상들의 우연적 표식marks에 의하여 지시를 고정시킨다.”³⁰⁾

(3) 지금까지의 답변은, 이름의 지시메카니즘에 있어서 기술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말

26) 엄밀한 의미에서 크립키의 답변은 인과 이 아니라 인과론적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인과적 지시결정의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cf. NN. 96~7

27) cf. NN p. 127~8.

28) 데비트에 있어서 의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지시연쇄의 유형type of d-chain이다. cf. Devitt, *Designation*, pp. 25~64, 129~165.

29) cf. NN, pp. 53~60.

30) NN. p. 106.

한다. 3절의 논증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대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및 기술)을 갖고 있을 때에도 이름을 이용하여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 크립키에 따르면, 그러한 지시성공은 현재의 이름사용과 최초의 이름사용(즉 명명식baptism)간에 존재하는 모종의(인과)관계 때문이다.³¹⁾ 크립키가 제시하는 가설적 지시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최초의 명명식이 발생한다. 거기서는 예시ostension에 의해 대상이 이름지어지거나, 또는 기술에 의해 이름의 지시가 고정된다. 이름이 사술을 따라 전파되고 **passed from link to link**, 그때 이름을 전달받는 사람은, 그에게 그 이름을 들려준 사람과 동일한 지시로써 그것을 사용하려고 의도해야만 한다.”³²⁾

이는 간단히 말해서 이름은 최초의 명명식과 (그후) 대화(의 사술)에 의한 전달이라는 형태의 역사를 갖는다는 것으로서, 지시에 관한 한 이 메카니즘은, 데비트의 용어를 빌어, 지시정초(reference-grounding)와 지시차용(reference-borrowing)의 두 계기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³³⁾ 이름은 명명식을 통하여 대상에 연결되며[지시정초], 명명식 이후의 이름사용자에게 있어서 이름의 지시는, 그 이름을 (대화를 통하여)전해준 사람에게서 빌어온다는 것이다 [지시차용]. 이에 따르면, 우리가 대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도 불구하고 이름에 의하여 지시에 성공하는 것은, 그 이름사용이 최초의 이름사용(즉 명명식)에 인과적으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다.³⁴⁾

일단 이러한 대안적 지시메카니즘의 가설적 체시에 의하여 이름에 대한 반기술론적, 인과론적 설명은 완성된 모습을 갖춘다. 이 입장은 개별화자들이 이름의 (인과적)역사를 알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인과론은, 인과적 사술이 성공적 지시를 위하여 화자가 알아야만 하는 무엇이 아니라, 화자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간에(즉 지식과 무관히)지시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궁극적 기준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반기술론적이다.³⁵⁾ 이때 유의할 것은, 인과적 지시론 자체는 고유한 옹호논증이 없는 가설적 대안이라는 점이다. 인과적 지시론의 매력은 기술론적 지시 메카니즘의 난점과 인과론이 갖는 직관적 설득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인과적 설명이 옳다면 우리는, 이름에 의한 대상지시가 대상에 대한 관련지식의 존재여부, 관련지식의 올바름 여부와 무관히 성공한다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5. 인과적 이름이론 검토

어떤 기술적 지식의 도움 없이, 오직 인과적 관계의 존재여부에 의해 이름의 지시(성공)을 설명하는 입장이 인과론이다. 이 입장은 그 세부적 완결성여부와 무관히 주목할 만한 것인데, 그것은 특히 다음 두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이 입장은 지시메카니즘의 사회적 성격 social character을 명시적으로 부각시킨 최초의 주장으로서 중요하다. 인과적 모델에 의하면 이름의 지시는 지시보존의 (사회적)사술에 의존

31) 이 관계를 현재의 이름사용과 지시대상 간에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이도있다. cf. Devitt, *Designation* pp. xi, 133~136.

32) cf. NN, p. 96.

33) cf. *Designation*, pp. 129~138.

34) 이런 맥락에서 이 입장은 인과적 지시론 또는 인과적 이름이론이라 불린다. 또한 이 관계를 반드시 인과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의심하는 이도있다. cf. Donnellan, “Speaking of Nothing” p. 216.

35) cf. Donnellan, “Speaking of Nothing” p. 231.

한다. 이는 록크 이래 언어에 대한 제반연구가 간과해왔던 요소, 즉 지시메카니즘의 사회적 또는 집단적 성격을 지적하는 것이다.³⁶⁾

둘째, 인과론은 언어현상도 이 세계 내의 물리적 현상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사실상 이름의 지시가 인과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은 그렇게 분명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과라는 개념자체가 분명하게 해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론의 착상은 중요한데, 그것은 인과관계는 우리 물질세계의 진정한 실질적 관계라는 근대이래의 직관에 의한다.³⁸⁾ 이 현실세계 내의 현상을 현실세계의 실질적 관계로 해석한다는 매력은 인과론에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인과론은 아무런 유보없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론인 듯하다. 기술론에의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과론은 이름의 지시에 있어서 기술론적 요소(즉 지식 또는 기술)를 거의 전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한 인과론이(이름의)지시설명에 있어서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제기들이 여럿있다.

5. 1. 명명식의 문제

엄격히 말해서 크립키의 인과론은 철두철미한 인과론이 아니다. 앞서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4절 참조)그의 지시설명에는 명명식과(그이후의) 인과적 사슬에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명백하게 인과적인 것은 사슬의 부분 뿐인 듯하기 때문이다. 명명식은 이름과 대상을 기술이나 예시의 매개를 통하여 연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름의 대상지시는 궁극적으로 기술이나 예시와 같은 기술론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반 기술론으로서 인과론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듯하다.³⁹⁾

이에 대하여 크립키는 명명식에서의 기술과 예시를 지시를 고정시키는 우연적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그 경우 그 메카니즘에 대한(순수)인과적 해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명명식이 내부 메카니즘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요구되는데, 그 일단이 데비트에 의하여 시도되고 있다. 그 이론적 세부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나,⁴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문제는 심각한 듯하다. 그것은 데비트류의 프로그램 자체에 극복하기 어려운 원리적 난점이 있는 듯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름짓는다는 것이 언제나 상위 유개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비트겐슈타인의 예시적 정의(ostensive definition)논의가 잘 보여주듯이, 어떤 기호(음성기호든 시각기호든)와 대상을 단순히 대응시키는 것만으로는 이름짓는 것이 가능치 않기 때문이다: “예시적 정의는, 그 단어의 언어 내에서의 전반적 역할이 분명한 때에 그 사용-의미-를 설명한다.”⁴¹⁾ 이는 이름짓기에는 어떤 선행적 지식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

36) 이러한 측면은 이후 퍼트남의 언어의 노동분업 the division of linguistic labour이라는 개념으로 명료화 된다.

cf. Putnam, “The Meaning of Meaning” pp. 277~229.

37) 어떤 이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인과적 지시이론은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cf. J. Kim, “Perception and Reference without Causality”

38) cf. Dretske, “Causal Theories of Reference”

39) 이러한 점은 특히 이름의 지시를 반인과적 개념, 예컨대 지향성 등으로 설명하려는 이들로부터 중요하게 지적된다.

cf. Searle, “Proper Names and Intentionality”: McInsey, “Names and Intentionality”

40) 그러나 데비트의 시도는 그 자체 지각, 지향성 등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인과적 해석을 제공치 못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cf. Devitt, *Designation* pp. 25~29.

41) cf.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30.

다는 뜻이며, 그런 점에서(순수)인과론적 프로그램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 명명식은 순수인과론의 프로그램을 위협하는 요소로 남는 듯하다.

5. 2. 인과적 사술의 문제

명명식 이후의 인과적 사술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시의 인과적 사술이 지시변화(reference change)라는 중요한 언어적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에반스(G. Evans)가 잘 지적한 것으로서, 그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⁴²⁾ 원래 “마다가스카르”란 섬이름은 아프리카대륙의 한부분을 가르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유럽인이, 오해에 의하여 그 이름을 아프리카의 한 섬에 대한 것으로 사용하였고, 그리하여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그 유럽인은 아프리카대륙의 한 부분을 포함하는 올바른 인과적 사술에 놓여 있었으며, “마다가스카르”란 이름을 전언자의 지시와 동일하게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졌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마다가스카르”란 이름의 지시는 원래의 그것과 다르게 변화하였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인과적 사술이 이름의 지시결정에 있어서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⁴³⁾ 적절한 인과적 사술의 존재가 이름의 지시를 결정치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화하면 지시변화의 경우), 따라서 지시결정에는 인과적 기원 origin 이외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 예의 교훈이라 할 수 있다.⁴⁴⁾

이러한 제 반론들은, 인과론이 중요하고도 매력있는 착상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지시를 순수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많은 난점을 갖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이름은 어떻게 지시하는가?

6. 전망

기술론에 대한 인상적 비판, 그리고 간명하고도 설득력있는 대안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순수 인과론은 5절의 논의가 보여주듯, 이름의 지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다면 지시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교훈을 찾아보자.

일단 인과론의 발상법은 포기하기 어렵다. 그것은 인과론이 언어현상도 이 세계 내의 물리적 현상 중의 하나라는 엄연한 사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말했듯이 인과라는 개념 자체가 그다지 분명하게 해명된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과론의 착상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인

42) cf. Evans, “The Causal Theory of Names” p. 202.

43) 이 경우 동일한 의도라는 개념의 이해가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의도는 기본적으로 그 외현적 결과에 의해 구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거기서도 인과론이 유리할 것이 없다고 더메트는 지적한다. ch. Demmett, *Frege : Philosophy of Language* pp. 148~150.

44) 그 여분의 요소를 무엇이라 보는가 하는 문제가 인과론/기술론 논쟁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데비트는 인과적 지시정초(이른바 복수정초 multiple grounding)가 여럿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과론의 틀내에서 지시변화를 설명하려 시도한다. cf. *Designation*, pp. 56~57. 138~157. 이외에도 인과론은 “산타클로스”와 같이 지시대상이 없는 허구적 이름(의 유의미한 사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 지시의 인과론적 사술이란 개념은, 있다 할지라도 의미론적으로 무가치하다는 지적 등이 있다.

cf. Donnellan, “Speaking of Nothing” : Devitt, *Designation* pp. 167~188.

cf. Dummett, *Frege : Philosophy of Language* p. 148.

과관계가 우리 물질세계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실질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5절의 인과론비판은 지시는 결코 이름과 대상간의 인과적 연관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름이 처음 도입되는 부분도, 그리고 도입된 이름이 언어공동체에 전파, 전승되는 부분도 인과관계로서만은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역으로 (특히 명명식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기술론의 주장, 즉 우리의 대상지시는 대상을 확인하는 기술적 지식 없이는 가능치 않다는 것을 옹호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지시에 있어서 기술론의 착상 또한 전적으로 무시될 수 없다고 말해야 할텐데, 그럴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노선은 기술론과 인과론의 기본착상을 화해시키는 지시모델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필자가 결론적으로 제시해보는 모델인 바, 거기에는 어떤 기술론의 형태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인과론과 어떻게 결합되는가 등의 문제가 답해져야 한다. 그 세부에 관한 시론적 개괄로써 본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기술론을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프레게류의 전통적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 3절의 분명한 교훈이다. 분명히 3절의 비판은 지시에 있어서 우리의 (기술적)지식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 이때 비판의 초점이 개별화자의 지식이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우리 개개인들이 그 자신 완전히 이해치 못하는, 즉 지시결정능력이 없는 이름들을 사용한다는 언어적 사실에 근거하여, 개별화자의 지식과 지시는 무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비판의 요지였다. 그렇다면 프레게류의 주장은 어떻게든 변형되어야 하는데, 이에 더메트의 지적이 시사적이다. 그는 “의미(sense)가 지시를 결정한다”는 프레게류의 명제는 개별화자단위가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⁵⁾ 이는 3절의 비판을 따라 개인차원의 지시결정이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지시결정의 주체를 언어공동체차원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이름에 대하여 언어공동체 내의 각 개인이 자기나름대로의 지시기준 만을 가지고, 그리하여 언어공동체 내의 어떤 사람도 그것의 지시대상을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객관적 지시가 가능할 것인가? 더메트는 그러한 경우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그리하여 언어공동체 차원으로 전개된 기술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의미가 지시를 결정한다”고 말할 때의 “의미”를 언어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공유란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이 의미(및 관련지식)를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퍼트남이 말하는 이른바 “언어의 노동분업”이라는 집단적 소유형태를 말한다. 퍼트남에 따르면 우리언어는, 그 지시기준이 어떤 특정집단에만 알려져있는 어휘들을 가지며, 기타 사람들의 경우 그 어휘사용은 그 특정집단과 그들간의 구조적 협업관계에 기반한다.⁴⁶⁾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은 어떻게 인과론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에 에반스(G. Evans)를 참조할 만하다. 그는 마다가스카르예 (5. 2절 참조)를 주목하여 크립키의 인과론모델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크립키 모델의 결합은 이름/대상 간의 인과관계를 화자의 이름 사용과 명명식 사이에 설정했다는 점이다. 그 경우 인과론은 5절에 지적된 난점들을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신 화자의 “전체지식 the body of information”과 대상간에 인과적 관계를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⁴⁷⁾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화자의 지식이 지시를 결정하며, 그 지식은 전체의 수준에서 대상과 인과적 관련을 갖는다는 주장이며, 따라서 화자의 지식이 지시를 결정

45) cf. Dummett,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pp. 137~143.

“The social character of meaning” pp. 424~426.

46) cf. Putnam, “The Meaning of ‘Meaning’” pp. 227~229.

47) cf. Evans, “The Causal Theory of Names” pp. 203~205.

한다는 기술론적 요소와 화자의 지시과 대상 간의 인과관계라는 인과론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게 된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그러나 이는 개별화자의 단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필자는 에반스의 모델을 수정한 인과론적 모델이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리라고 본다. 수정의 요점은 이름의 지시에 관련된 지식은 개별화자의 그것이 아니라 언어공동체의 (협업적) 지식이라는 점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이 결론적으로 옹호하는 이름의 지시모델은 공동체의 지식 전체수준에서의 지시결정이라는 기술론적 요소, 그리고 그 지식의, 세계와의 인과적 연관이라는 인과론적 요소의 합성모델이다. 더메트가 지적하듯이 이름/대상 간의 관계는 의미론적으로 무가치할 수도 있다. (5. 2절 참조) 그러나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이 세계의 유일한 실질적 관계는 인과관계이며,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사용과 세계와의 관계 역시 궁극적으로는 인과관계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과론의 기본 직관은 포기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이름/대상 간의 인과적 연관은 우리 언어공동체의 공유된 지식전체와 세계와의 인과적 연관이리라는 것이 본논문의 제안이다. 물론 그런식의 인과적 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보다 상세히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세부가 분명치 않은 지금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은 옹호될만 하다. 그러한 접촉을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직관적 매력을 가질 뿐 아니라, 또한 세계와의 실질적 관계없이 생존에 필요한 성공적 표상(representation)이 기능치 않으리라는 선행논증에 의해서도 옹호될 수 있을 것이다.⁴⁸⁾ 결론적으로, 이에 따르면 어떤 지식의 매개도 없는 직접적 지시란 납득할 수 없는 개념이 된다.

48) cf. Stampe, "Toward a Causal Theory of Linguistic Representation" p. 82.

참 고 문 헌

- 정대현 (1986) “지칭 : 언어적인가 존재적인가?” 철학 26집, pp.23~51.
- Devitt, N. (1981) *Designation* Columbia U. P.
- Donnellan, K. S. (1966)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rp. in Schwartz, 1977, pp. 42~65.
 (1972) “Proper Names and Identifying Descriptions” in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D. Davidson and G. Harman, eds. Dordrecht : D. Reidel), pp. 356~379.
 (1974) “Speaking of Nothing” rp. in Schwartz, 1977, pp. 216~244.
 (1977) “The Contingent A Priori and Rigid Designators” in French et. al. 1979.
- Dretske, F. (1977) “Causal Theories of Reference” JP 74, pp. 621~625
- Dummett, M. (1973) *Frege : Philosophy of Language*, Harper and Row.
 (1974) “The social character of meaning” rp. in *Truth and other Enigmas*(Harvard U. P. 1978)
 (1975) “Frege’s Distinction Between Sense and Reference” rp. in *Truth and Other Enigmas*
- Evans, G. (1973) “The Causal Theory of Names” in Schwartz 1977.
- Frege, G. (1892) “On Sense and Reference” in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pp. 56~78.
 (eds. by P. Geach and M. Black, Basil Blackwell, 1970)
- French, Uehling, Wettstein (eds.) (1979)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Minnesota U. P.
- Kaplan, D. (1978) “Dthat” in French et. al. 1979.
- Kim, J. (1971) “Perception and Reference Without Causality” JP 74 pp. 606-620.
- Kripke, S. (1971) “Identify and Necessity” rp. in Schwartz, 1977, pp.66-101
 (1980) *Naming and Necessity*, Harvard U.P.
 [NN으로 약식표기함]
- Linsky, L. (1977) *Names and Descrip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Insey, M. (1978) “Names and Intentionality” *The Philosophical Review*, 87-2, pp. 171~200.
- Mill, J. S. [1843] “of Names” Book 1, chapter 2, *A System of Logic* (Harper and Brothers, 1893) pp. 29~44.
- Plantinga, A (1978) “The Boethian Compromise” APQ 15-2, pp. 129~138.
- Putnam, H. (1975) “The Meaning of ‘Meaning’” in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U. P. 1975)
 (1977) “Is Semantics Possible ?” in Schwartz
- Russell, B. (1905) “On Denoting” rp. in *Logic and Knowledge* (London, 1956)
- Schwartz, S. P. (1977) “Introduction” in *Naming, Necessity, and Natural Kinds* (1977) *Naming, Necessity, and Natural Kinds* Cornell U. P.
- Searle, J. (1958) “Proper Names” rp.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by A. Martinich, Oxford U. P. 1985)
 (1967) “Proper names and Descriptions” in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6 (ed.

by P. Edwards, Macmillan Publishing Co. and the Free Press)

(1983) "Proper Name and Intentionality" in *Intentionality* (Cambridge U. P.)

Stampe, D. (1977) "Toward a Causal Theory of Linguistic Representation" in French et. al. 1979.

Strawson, P. (1959) *Individuals*. Methuen

Wittgenstein, L. (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Macmillan